

# 聽松 成守琛의 書風

정진규\*

- I. 머리말
- II. 成守琛 글씨의 연원과 특징
  - 1. 楷書
  - 2. 行草
- III. 聽松 書風の 계승과 평가
  - 1. 청송 서풍의 繼承
  - 2. 청송 서풍의 評價
- IV. 맺음말

## I. 머리말

聽松 成守琛(1493~1564)은 16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명필이다. 그가 살았던 16세기에는 이미 趙孟頫(1254~1322)의 松雪體가 확산되어 조선의 서체로서 확고한 자리를 잡은 이후였고, 明代의 새로운 서풍이 수용되기 시작했다. 당시 지나치게 외형적인 아름다움만 추구한다는 비판을 받던 송설체는 점차妍媚한 모습을 덜어내거나 王羲之(303~361) 서법의 전형을 찾아가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성수침은 이때 元代 서풍을 가장 폭넓게 수용하며 개성적인 서풍으로 이러한 흐름을 선도하였다. 그의 글씨는 15세기에 대세를 이루었던 송설체와 16세기 전반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명대 서풍과도 구별되는 독자적인 면모를 보인다는 점에서 서예사적으로 주목된다.

지금까지 성수침에 대한 연구는 詩學이나 遺逸의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지만, 서예사적인

\* 예술의전당 서예박물관 학예사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비한 편이다.<sup>1</sup> 서예사 연구에서 성수침 서풍의 바탕과 관련하여 元明代 서풍과 연관성을 개괄한 글이 있다.<sup>2</sup>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주로 시인, 處土로서 평가받아온 성수침을 서예가로서 조명하기 위하여 그의 서풍적 연원과 특징, 그의 글씨에 대한 당대·후대의 평가 등을 통해 조선시대 서예사에서의 위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 성수침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면, 본관은 昌寧으로 그의 가문은 조선 초 이래 명문가로 알려져 있었다.<sup>3</sup> 그 중 6세손 成汝完을 비롯하여 成石珉·成抑·成得識·成忠達 등이 높은 관직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벌였다. 성수침은 1493년 2월 19일 大司憲 成世純(1463~1514)과 강화부사를 지낸 金克昵의 딸인 光山金氏(?~1552) 사이에서 4남 1녀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號는 聽松, 字는 仲玉, 당호는 聽松堂·竹雨堂이며 별호로 坡山淸隱·牛溪閒民이 있다.

그의 생애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거처의 이동을 분기점으로 삼아 初年(1493~1525)·中年(聽松堂時期 1526~1543)·老年(竹雨堂時期 1544~1564)의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sup>4</sup> 먼저 초년은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靜菴 趙光祖(1482~1519)의 문하생으로 활동하던 시기이다. 중년은 1519년 己卯土禍를 겪으면서 출사를 포기한 뒤, 서울 白岳山(북악산) 기슭의 幽蘭洞에 聽松堂을 세우고 학문에 전념하며 은거하던 시기이다. 노년은 서울에서 생활을 접고 경기도 파주로 옮겨 坡平山 아래의 牛溪에 竹雨堂을 짓고 은거하던 시기이다.

성수침의 생애에 있어 조광조는 그의 학문에 큰 영향을 준 유학자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광조 문하에서 그는 유학의 근본을 수용하고 문하의 다른 제자들과 폭넓은 교류할 수 있었다. 이로 말미암아 徐敬德(1489~1546), 林億齡(1496~1568), 曹植(1501~1572) 등 조광조의 문하생이었던 학자들과 두루 교류하게 되었다. 또한 성수침의 학문적 태도는 아들 成渾(1535~1598)과 그와 친밀했던 栗谷 李珥(1536~1584)의 도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

1 성수침에 관해서는 成校珍, 『聽松의 遺逸思想』, 『研究論文集』 34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87), pp. 147-189; 성수침 문집 『聽松集』 일부 번역 소개한 池承鍾, 『聽松集』 解題, 『南冥學研究』 9 (경상대학교 南冥學研究所, 2000), pp. 457-469; 권혁명, 『聽松 成守琛 詩世界의 一考察 -淸隱의 詩世界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51 (2008), pp. 235-258 등이 있다.

2 李完雨, 『聽松 成守琛 I』, 『월간까마』 36 (石曲室, 2002), pp. 98-101; 『聽松 成守琛 II』, 37, pp. 98-101 참조.

3 성수침의 가계에 대해서는 『聽松集』을 비롯해서 『昌寧成氏桑谷派族譜』를 참조.

4 성수침의 생애에 관한 대표적인 기록은 李珥, 『栗谷全書』 권18, 『聽松成先生行狀』; 奇大升, 『高峯集』 권3, 『坡山成先生墓誌銘』; 李滉, 『退溪集』 권46, 『聽松成先生墓碣銘 并序』 등이다. 또한 池承鍾, 『聽松集』 解題, 『南冥學研究』 제9집(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0), pp. 459-466 참조.

## II. 成守琛 글씨의 연원과 특징

성수침이 초년에 누구에게 글씨를 배웠는지는 미상이다. 다만 창녕성씨 선조 가운데 成石璘(1338~1423)·成三問(1418~1456)·成任(1421~1484)·成倪(1439~1504)·成希顏(1461~1513)·成世昌(1481~1548) 등 글씨에 뛰어난 인물이 대대로 많았기 때문에 가풍의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따름이다.

성수침의 필적은 眞蹟과 摹刻이 상당수 전하는데, 대개 楷書와 行草이며, 그 중 행초가 다수를 차지한다. 제작 연대가 확실한 예가 매우 드물어 시기에 따른 변화 과정을 알기는 어렵다. 본고에서는 그의 필적을 해서와 행초로 나누어 어떤 글씨를 바탕으로 했으며 그가 이루어낸 서풍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도1 成守琛, 〈黃起峻墓碣銘〉, 1545년경, 搨本, 38.7×25cm, 《金石清玩帖》, 국립중앙박물관.

### 1. 楷書

성수침이 활동한 16세기는 조맹부의 송설체가 주류를 이룬 가운데 왕희지 등 고법으로의 복고가 전개된 때이다.<sup>5</sup> 송설체는 〈鬪風七月詩〉나 〈證道歌〉에서 보이듯 典雅하고 流麗한 필획이 뛰어나다. 성수침의 楷書에는 조맹부의 부드럽고 의도하지 않은 자연스런 필치가 충실하게 반영되어 있다. 그 예로 성수침의 대표적인 비갈문과 진적을 차례로 살펴보겠다.

성수침의 해서는 楷正한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行氣가 더해져 있는데, 가장 단정함을 보이는 비갈문으로 〈黃起峻墓碣銘〉이 있다(도 1).<sup>6</sup> 이 비갈문은 납작한 자형에 단정한 짜임을 이루며 點劃의 처리도 부드럽다. 이 필적을 조맹부의 해서와, 성수침의 후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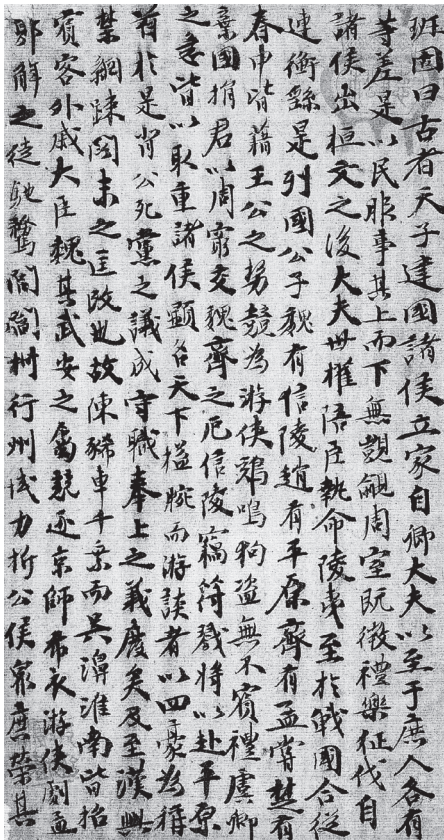
5 李完雨, 「조선시대 松雪體의 토착화」, 『書藝學』 제2호(韓國書藝學會, 2001), p. 257 참조.

6 黃起峻은 본관이 장수로 증중(1488~1544) 때의 문신이다. 『權域書畫徵』에는 성수침이 陝川에 있는 참관 方有寧의 碑文과 交河(경기도 파주시 교하면)의 별제 황기준의 비문을 썼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에 해당하는 비문 탁본이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金石清玩》제8첩에 있는 〈황기준묘갈명〉이다. 이 비의 내용과 여러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필적은 황기준이 사망한 1545년 이후, 즉 53살 노년 시절 초기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가능하다(吳世昌, 『근역서화징』 권3, 성수침 조, 『海東金石總目』 인용문, “書陝川方參判有寧碑, 交河黃別提起峻碑”).

표 1 성수침과 조맹부·송인의 해서 비교

	不	有	公	之	我	以
조맹부						
성수침						
송인						

- 조맹부, 〈鬪風七月詩〉, 14세기, 石刻 搨本, 30×18cm, 국립고궁박물관.
- 성수침, 〈黃起峻墓碣銘〉, 1545년경, 搨本, 38.7×25cm, 《金石清玩帖》, 국립중앙박물관.
- 송인, 〈李忠緯墓碣銘〉, 搨本, 35×16.5cm, 帖, 개인.



도2 성수침, 〈許詡傳〉, 紙本, 35.9×19.3cm, 《權域書彙帖》, 서울대박물관.

로 당시 송설체의 대표적인 명서가이던 宋寅(1516~1584)의 비갈문과 비교해 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표 1). 즉 성수침의 비갈문은 오랜 마모로 인해 둔중한 감이 있지만, 조맹부나 송인의 글씨와 대체로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동시기에 활동했던 송인의 글씨가 우아한 획법과 짜임으로 송설체의 진전된 형태를 보이는 반면, 성수침의 글씨는 송설체 특유의 유려함이 절제되어 보다 근엄하고 단정한 형태를 띤다.

다음 성수침의 해서 진적으로 지금까지 알려진 예는 대부분 詩稿 등의 小字이다. 그 중 약간 흘려 쓴 해서인 〈許詡傳〉은 긴밀한 짜임, 고른 획법을 보인다(도 2). 특히 글자의 대소와 먹의 농담에 차이를 주어 변화를 꾀하였다. 또한 획의 기울기에 약간의 변화를 주고, 삐침과 파임을 길게 빼어 강조하였다. 〈허후전〉을 조맹부 및 文徵明(1470~1559)의 필적과 비교해 보면 성수침 글씨의 연원을 알 수 있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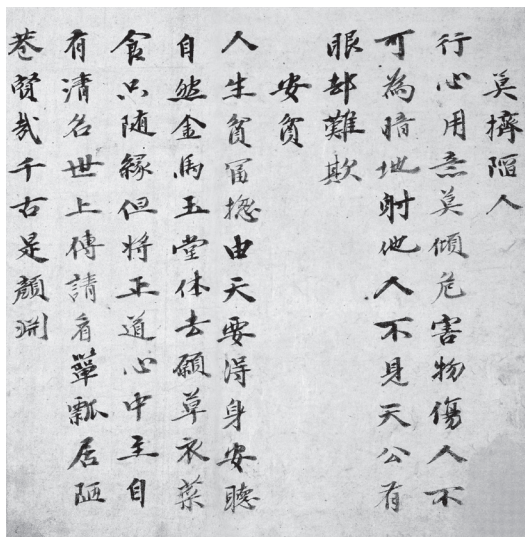
〈허후전〉 글씨는 자형이나 점획 또는 삐침

표 2 성수침과 조맹부·문징명의 해서 비교

	조맹부	문징명	성수침		조맹부	문징명	성수침
家				客			
故				大			
是				人			
之				天			
後				公			
國				無			
事				成			
也				爲			

- 조맹부, 《道德經》, 1316년, 紙本, 24.5×18.6cm, 베이징 故宮博物院.
- 문징명, 《刺客列傳》, 1537년, 紙本, 20.8×327.3cm, 타이베이 國立故宮博物院.
- 성수침, 《許詔傳》, 紙本, 35.9×19.3cm, 《權域書彙帖》, 서울대박물관.

이나 파임이 강조된 늘씬한 형태를 띠고 있는 점에서 문징명보다는 조맹부에 더 가깝다. 반면 붓을 틀거나 꺾는 轉折 부분에서 圓筆勢의 처리, 파임에서 붓을 거둬들이는 收筆 부분을 길게 빼지 않고 짧게 누른 점에서는 문징명과 부분적으로 유사하다. ‘故·是·天’자의 글자에서 보듯 파임 부분을 굵게 맺어 강조하거나 ‘也’ 자에서 보이는 수평의 물결치는 파임은 성수침 글씨의 독특한 요소라 할 수 있다. 이 필적은 비문의 해서 글씨와는 달리 行書氣의 실체로 필사적 특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도3 성수침, 〈莫擠陷人〉과 〈安貧〉, 紙本, 30.5×36cm, 《巖莊古蹟》 제1책, 보물 제902호, 경북 봉화 冲齋權撥宗孫家.

이와 유사하게 〈莫擠陷人〉과 〈安貧〉<sup>7)</sup>(도3)은 옆으로 잡아당긴 듯한 납작한 자형에 전체적으로 짜임은 글자와 여백의 관계를 정연하게 배열하고 네모지고 반듯하여 방정한 느낌을 주고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강약이 있는 肥瘦의 차이로 변화로운 운필을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성수침의 소자 해서는 조맹부의 글씨를 근간으로 하였고, 전절 부분에서의 원필세는 문징명 글씨의 요소와 부분적으로 유사하며, 또 납작한 자형에 파임을 짚고 굽게 강조한 점 등이 독특하다. 이와 같이 소자 해서에서는 조맹부와 문징명 글씨의 요소와 성수침의 특징이 모두 나타난다.

성수침의 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황기준묘갈명〉에서 보이듯이 전대서부터 유행하던 송설체의 영향을 받은 예이다. 둘째, 〈허후전〉이나 〈막제함인〉과 〈안빈〉류의 소자 해서에서는 왕희지 소해를 근간으로 한 조맹부의 소해 서풍에 바탕을 두었다. 특히 이러한 소해 서풍은 뒤에서 살펴볼 소자 행초와 연관성이 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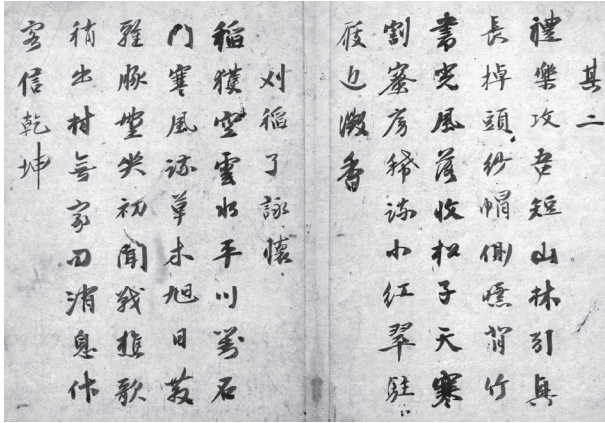
## 2. 行草

성수침의 행서와 행초는 그의 필적 중 가장 많으며 서풍적 특징도 잘 나타난다. 조맹부·선우추 등의 원대 서풍을 충실히 수용한 예도 보이며 그의 개성이 드러나는 自家風도 보인다. 각각의 서풍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예를 차례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小字行草

먼저 송설체의 영향을 받은 예로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의 〈행서 杜甫詩 五言律詩〉가

<sup>7)</sup> 〈莫擠陷人〉 칠언절구와 〈安貧〉 칠언율시는 경북 봉화의 冲齋 權撥(1478~1548) 종손가의 《巖莊古蹟》에 실려 있다. 이 서첩은 성수침을 비롯 柳洵·李賢輔·李滉 등 15~16세기 명신·학자 34명의 필적 57점이 실려 있다.



도 4 성수침, 《行書杜甫詩 五言律詩》, 紙本, 35×24cm,  
《聽松筆法帖》,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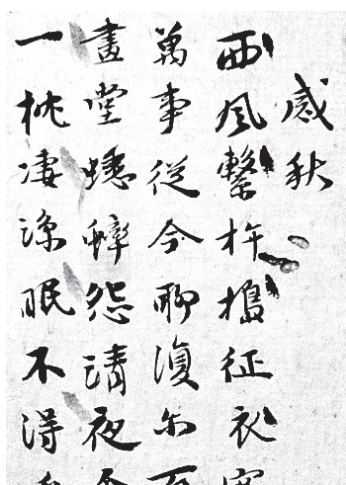
있다(도 4). 이 필적은 자형이 좀 납작하면서도 간결한 짜임에 太細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를 왕희지와 조맹부의 글씨와 비교해 보면, 이들의 글씨는 자형은 물론 점획·짜임·운필에 있어 유사한 예가 많다(표 3). 특히 이는 조맹부 스스로가 晉唐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한 復古主義 서예가이 었기 때문에 왕희지의 글씨와도 대체로 같은 경향성을 띠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조맹부에 비해 더 납작하며, 필선에 강약을 조절하여 肥瘦의 차이를 주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성수침의 소자 행서 역시 전반적인 틀은 조맹부 서풍에 가장 근간을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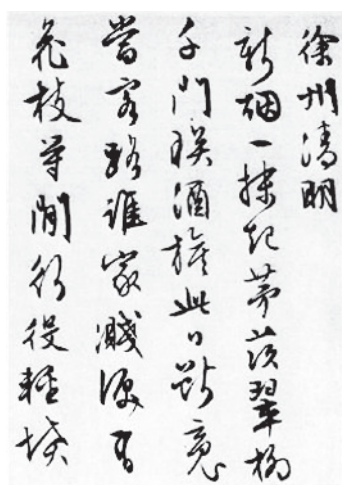
표 3 성수침과 왕희지·조맹부의 소자 행서 비교

	왕희지	조맹부	성수침		왕희지	조맹부	성수침
各	各	各	各	見	見	見	見
空	空	空	空	能	能	能	能
來	來	來	來	子	子	子	子
無	無	無	無	月	月	月	月
天	天	天	天	風	風	風	風
未	未	未	未	之	之	之	之

- 왕희지, 《集字聖教序》, 672년 集字, 搨本, 25.0×19.1cm, 일본 개인.
- 왕희지, 《蘭亭敘》, 353년, 紙本, 25.6×65.6cm, 베이징 故宮博物院.
- 조맹부, 《赤壁賦》, 1301년, 紙本, 28.4×12.1cm, 타이베이 國立故宮博物院.
- 성수침, 《行書杜甫詩 五言律詩》, 紙本, 35×24cm, 《聽松筆法帖》,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도5 성수침, 《行草 陸遊詩》, 紙本, 36.8×25.5cm, 《聽松書帖》, 개인.



도6 文徵明, 《《行草 紀行詩卷》》, 1537년, 紙本, 20.8×327.3cm, 타이베이 國立故宮博物院.

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은 단정한 조맹부 류의 서풍과는 다른 독특한 필치를 보이는 예다. 개인소장 <행초 陸遊詩>(도 5)가 그러한데, 앞서 보았듯이 납작한 짜임에 굵은 파임의 글씨와는 다른 서풍이다. 이는 문징명의 서풍과 유사한 경우로 성수침 당대나 이전에는 이런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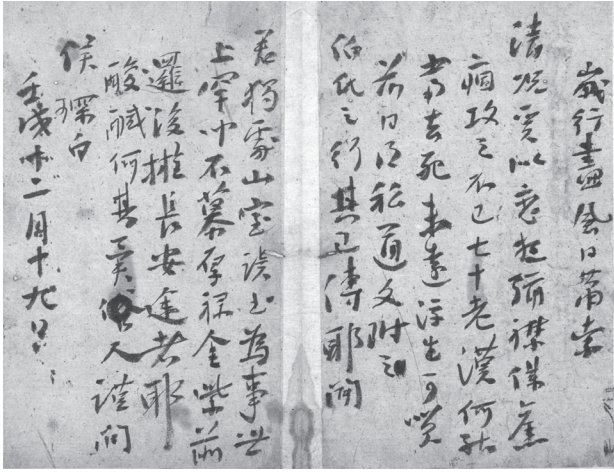
풍이 보이지 않는다. 이를 조맹부와 문징명의 글씨와 비교해보면, 둥근 원필세의 획이나 완곡한 운필에서 조맹부 글씨보다 문징명의 글씨에 보다 가까워 보인다(도 6). 다만 성수침의 행서는 삐침이나 파임이 강조된 특징은 여전히 나타난다.

이처럼 성수침의 글씨에 문징명 글씨의 특징적 요소가 가미된 점을 볼 수 있는데, 성수침이 활동하던 16세기 당시에 과연 동시대인이었던 문징명의 서풍이 국내에 수용되었는가는 의문이다. 성수침의 활동시기를 보더라도 문징명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데, 과연 성수침이 전대 명서가의 필법을 받아들여 자기화한 것인지 아니면 문징명을 수용한 결과인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성수침이 문징명의 서풍을 접하거나 수용했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 다만 그의 부친 성세순이 1506년에 同知中樞府事로서 명에 聖節使로 다녀온 기록을 통해 그가 중국 법첩이나 중국 명적을 접했을 가능성을 짐작할 뿐이다.<sup>8</sup>

문징명의 필적이 17세기 초에 국내에 전해졌다는 실록 기록이나 문징명의 서풍이 18세기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조선에 수용되기 시작한 점을 감안할 때 성수침의 소자 행초에서 나타나는 문징명 서풍의 요소는 시대를 앞선 특이한 예로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성수침만의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나는 예로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 <행초 書簡>이 있다(도 7). 서간의 왼쪽 말미에 ‘壬戌’이란 연대가 적혀 있어 1562년 즉 70세 필적임을 알

<sup>8</sup> 『燕山君日記』 권63, 12년(1506) 7월 11일(戊子)條, “遣同知中樞府事成世純, 如京師賀聖節, 王率百官, 拜表于仁政殿.”



도7 성수침, 〈행초 書簡〉, 1562년, 紙本, 35×24cm, 《聽松筆法帖》, 숙명여자대학교도서관.

수 있다. 이를 통해 노년기 서풍의 특징을 가늠할 수 있는데, 전에 비해 보다 자유분방하며 거침없는 필치를 구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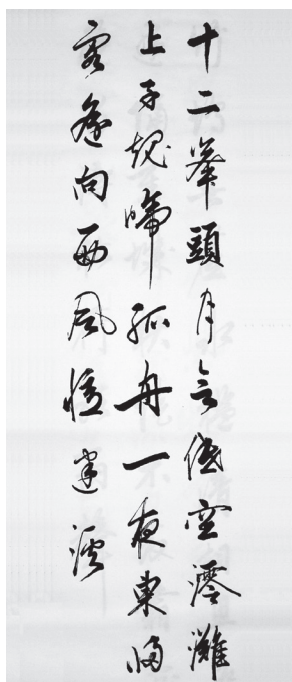
성수침의 소자 행초는 뚜렷이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왕희지 등의 고법, 조맹부 그리고 등글등글한 필세의 붓놀림이 동시에 나타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수침의 소자 행초는 고법을 바탕으로 하는 동

시에 그만의 독특한 필치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점은 대자 행초에 보다 두드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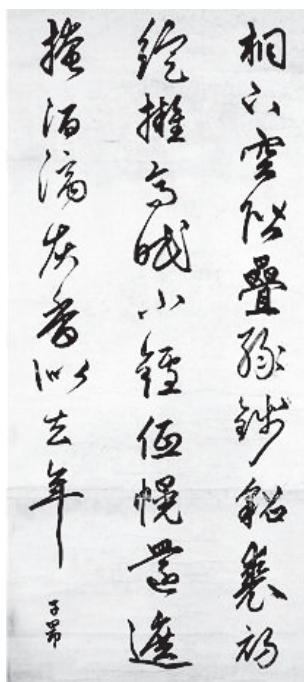
## 2) 大字行草

성수침의 대자 행초 서풍을 가장 잘 보여주는 3점의 필적이 전한다. 첫째는 조맹부 서풍을 보여주는 목판 필적으로 창녕성씨 후손가에 전하는 〈행초 唐詩 七言絕句 8폭〉이다(도 8). 이 글씨는 자형이 위아래로 길쭉하며 특히 세로로 내려 굽는 획을 시원스럽게 강조하였다. 또한 전반적으로 운필이나 획법이 부드러워 조맹부의 서풍에 보다 가깝다. 성수침이 조맹부의 진적 대자 필적을 소장했었다는 기록과 성수침 所藏印 《千字文》 필적이 남아있어 주목된다.<sup>9</sup>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성수침의 판목 필적에 송설체의 전형이 잘 나타나 있어 그가 평소 조맹부의 대자 행초를 익혔음을 짐작할 수 있다. 〈행초 당시 칠언절구 8폭〉을 조맹부와安平大君李瑿(1418~1453)의 목판 필적과 비교해 보면(도 9, 10), 세 필적 모두 자형이나 획법, 그리고 圓筆과 方筆을 섞어 부드러움과 굳셈을 적절히 표현한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또 경사진 빼침·파임이나 긴 가로획으로 운필의 리듬을 준 점에서도 흡사하다. 안평대군 이용은 성수침의 선배 명필로 조맹부의 글씨를 깊이 터득하여 송설체의 유행을 선도하는 데에 중심적 역할을 했다.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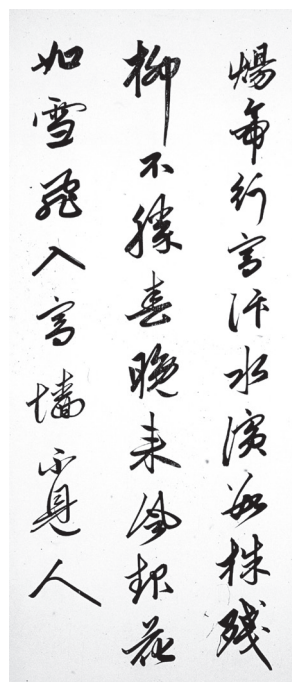
<sup>9</sup> 金正喜가 연경에 가는 申緯를 전송하며 지어 준 칠언절구 10수가 『阮堂先生全集』 권10에 『送紫霞入燕』이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 중 네 번째 수의 細注에 “자하가 일찍이 聽松堂이 소장했던 송설체 진적 대자를 임모한 것을 보여 주었다(紫霞嘗摹示聽松堂所藏松雪眞迹大字)”라는 내용이 있다.



도8 성수침, 〈행초唐詩七言絶句〉  
8폭부분, 목판, 164×37cm,  
屏風, 대전 창녕성씨  
우계후손가.



도9 趙孟頫, 〈행초陸龜蒙詩〉,  
18세기 摹刻, 목판, 144.5×  
56.7cm, 軸, 보물 제1220호,  
강릉시오죽헌·시립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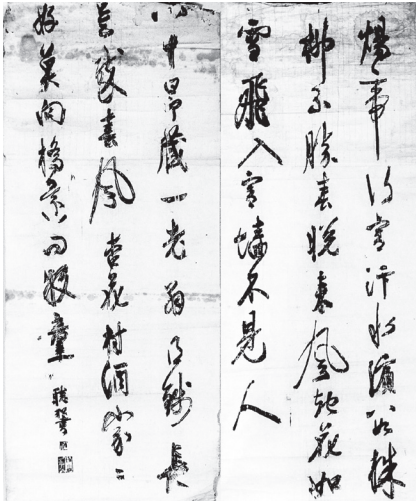


도10 李瑒, 〈행초李白詩〉  
6폭부분, 목판, 81×39cm,  
屏風, 강릉시오죽헌·  
시립박물관.

수침 또한 당시 유행하던 송설체의 경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들 필적에서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둘째는 放逸한 서풍을 보여주는 목판 필적으로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행초唐宋 칠언절구 8폭〉이다(도 11). 이 필적은 위의 것에 비해 자형이 위아래로 좀 길고 짜임과 점획의 변화가 보다 많으며, 기세가 좋고 자신감에 찬 운필을 보여준다. 특히 간간히 한 글자를 강조하여 크게 쓰고, 삐침을 사선 방향으로 길게 뽑아 변화를 주었다. 이러한 활달하고 生動하는 운필은 조맹부와 동 시기에 활약한 鮮于樞(1257~1302)의 대자 행초와 유사한 점이 있다. 이 필적을 선우추의 글씨와 비교해 보면(표 4), 직선적으로 간명하게 처리한 획이나 글자의 대소를 뚜렷하게 한 점에서 상당히 유사하다. 전체적인 구성이 변화로운 장법을 보이며 획의 강약 조절이 잘 나타난다. 특히 붓 가는 대로 써내려간 운필과 빠른 필속으로 인해 점획이 거친 필세를 띤다.

선우추의 서풍은 송설체에 비하여 널리 애호되지는 못했지만 역시 晉唐古風을 수용했으



도 11 성수침, <행초唐宋七言絶句> 8폭 부분, 목판, 157.7×66.2cm, 屏風, 서울역사박물관.



도 11-1 <坡山清隱> 印影, 下: 제8첩 말미, 4.8×4.3cm.

며 특히 초서에 뛰어났다.<sup>10</sup> 필적과 관련 문헌도 매우 드물지만 안평대군의 중국 서예 수장품에 조맹부 행서 26점과 함께 선우추 초서 6점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당시의 서예사에 미친 선우추의 영향은 결코 간과할 수 없다.<sup>11</sup> 또한 『중종실록』 1524년 5월 10일 조에 당시 都承旨이던 金希壽가 선우추의 진

필 초서 1첩을 바치며 간행할 것을 청하자, 중종이 개간하라고 허락하는 기사가 나온다.<sup>12</sup> 이때

표 4 성수침과 선우추의 대자 행초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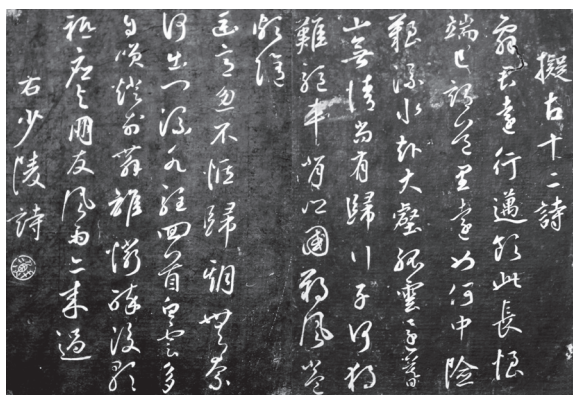
	선우추	성수침		선우추	성수침		선우추	성수침
起			樹			初		
到			誰			遠		
露			詩			野		

- 성수침, <행초唐宋七言絶句 8폭>, 목판, 157.7×66.2cm, 屏風, 서울역사박물관.
- 선우추, <草書韓愈石鼓歌>, 1301년, 紙本, 44.8×364.7cm, 卷, 뉴욕 메트로폴리탄미술관.

<sup>10</sup> 선우추는 조맹부와 함께 원대 북고주의를 이끈 서예가로, 그의 서풍은 조맹부와 더불어 고려 후기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鮮于樞 서풍은 李完雨, 「조선시대 松雪體의 토착화」, 앞의 책, p. 86.

<sup>11</sup> 김홍남, 「安平大君 소장 中國 書藝: 宋 徽宗, 蘇軾, 趙孟頫, 鮮于樞」, 『미술사논단』 8(한국미술연구소, 1999), pp. 77-78 참조.

<sup>12</sup> 『중종실록』 권50, 1524년 5월 10일 갑술, “都承旨金希壽, 以鮮于樞草書真筆一貼進獻曰: ‘樞之書法, 世稱優於趙孟頫, 而傳于東方者甚寡, 今此蹟, 若泯滅不傳, 深可惜也, 請使畫工精模, 入石廣傳何如? 若以爲, 年凶不可爲是役, 則請先打模, 而待後開刊何如?’ 傳曰: ‘其令開刊.’”



도 12 鮮于樞, 《行草 擬古十二詩》, 1524년刊, 탑본, 44.5×28.5cm, 《鮮于樞金生書法帖》, 장서각.

개간한 것으로 보이는 《鮮于樞金生書法帖》은 현재 남아있는 선우추의 간본으로 유일하게 알려진 예이다(도 12)<sup>13</sup>. 선우추 초서첩의 간행은 16세기 전반기에 선우추 필적의 확산에 크게 기여를 하였을 것이고, 성수침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선우추의 필적을 접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위의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행초 당송 칠언절구 8폭〉 중 李白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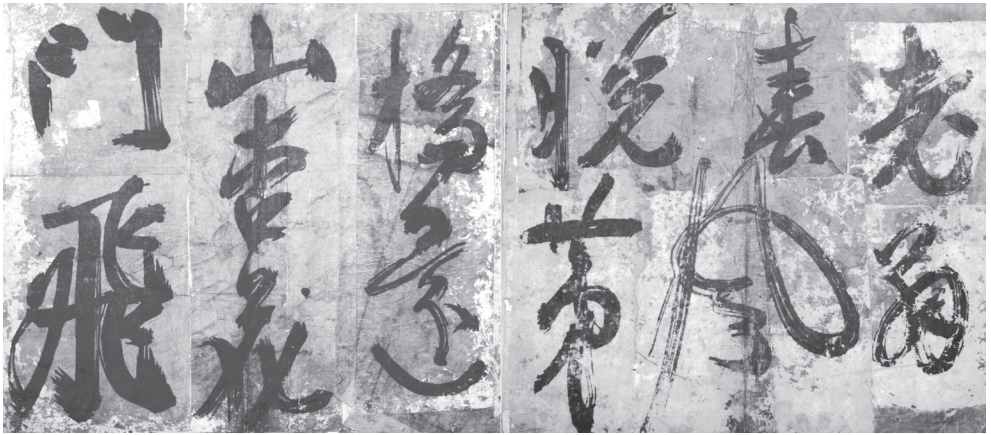
를 쓴 것과 안평대군 이용이 쓴 이백의 시를 비교하면, 성수침만의 특징을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도 10, 11). 부드러운 송설체를 구사한 안평대군 이용에 비해 길쭉한 자형과 거칠고 호방한 필세에서 성수침만의 개성이 드러난다. 이는 앞서 보았던 창녕성씨 후손가의 〈행초 당시 칠언절구 8폭〉이 안평대군 이용·조맹부의 서풍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성수침과 안평대군 이용의 현저하게 다른 서풍 차이는 성수침이 선우추 서풍을 토대로 활달하고 거친 필법을 구사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의 글씨에서 선우추 서풍의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는데, 조선 전반기인 15, 16세기를 통틀어 성수침 만큼 선우추 서풍을 팝진하게 구사한 서예가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 폭 말미에 ‘坡山清隱’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어 노년기의 글씨임을 알 수 있다(도 11-1).<sup>14</sup> 이로 보아 성수침의 글씨는 초년에 당시 대세였던 조맹부를 따랐고 후대로 갈수록 꾸밈없는 率意의 선우추 서풍의 영향이 배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현전하는 필적 중에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글씨가 많은 것으로 보아 성수침이 대자 행초 글씨를 즐겼고, 선우추류의 글씨를 더 선호하여 썼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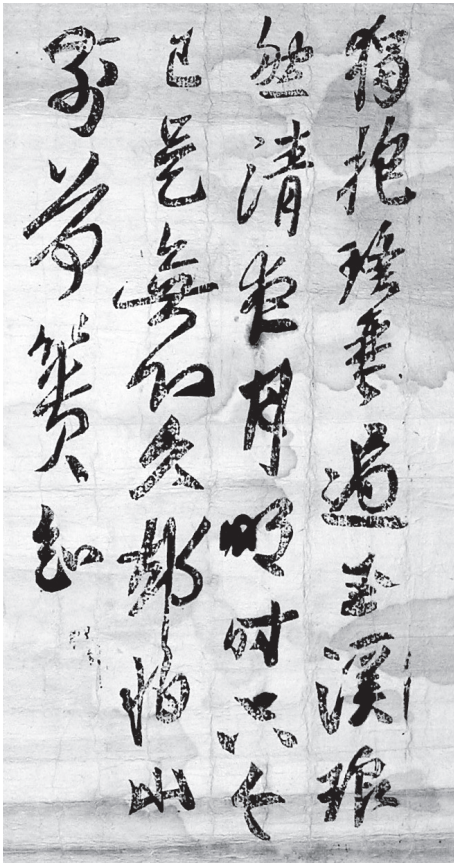
셋째로 선우추 서풍을 수용한 바탕 위에 성수침의 개성적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는 예로 〈행초 唐宋 七言絶句〉와 〈행초 韋應物詩〉가 있다(도 13, 14). 이들 필적은 빠른 운필이면서도 藏

<sup>13</sup> 《鮮于樞金生書法帖》은 선우추 초서와 신라 김생의 행서 法書. 선우추 필적은 韋應物의 「擬古詩」 12수, 「雜體」 5수, 杜甫의 「何將軍山林詩」 6수를 쓴 것. 이 첩은 1525년(중종 20) 9월 경주손씨 孫仲暉(1463~1529)이 하사받은 內賜本.

<sup>14</sup> 인장은 대부분 그의 號인 聽松·坡山清隱·牛溪間民과 字인 仲玉 및 聽松居士 등으로 찍혀 있다. 자·호를 통해 글씨를 쓴 시기를 추론할 수 있는데 “청송” 印影이 찍혀있는 필적은 1526년 이후라고 볼 수 있고, “파산청은·우계한민”의 인영이 있는 글씨는 1544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다.



도13 성수침, 《行草 唐宋 七言絶句》부분, 紙本, 32×17.2cm, 帖, 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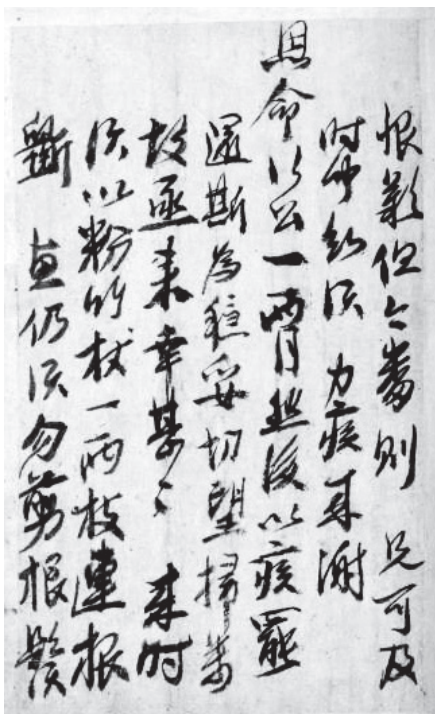
도14 성수침, 《行草 韋應物詩》, 목판, 54×33.1cm, 대전 창녕성씨우계후손가.

鋒勢를 잃지 않고 획의 太細와 글자의 大小 변화를 크게 하거나 行間을 넘나드는 변화로운 章法이 나타난다. 또한 여유로운 짜임과 활달하고 거침없는 필법으로 그의 개성적 필의를 마음껏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성수침의 글씨는 ‘원필의 굳센 획법을 통해 기고함을 추구했던[圓勁奇古] 선우추의 글씨보다 더 강건한 느낌의 필압을 주어 거침게 돌아가는 획이나 대담한 운필 등에서 특유의 자유스러운 필치가 나타난다. 이러한 활달하고 경쾌한 서풍은 선우추의 서풍을 자신만의 양식으로 변화·발전시켜 독자적으로 구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두 필적은 성수침 대자 행초의 自家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가 된다. 성수침의 대자 행초는 조맹부의 서풍을 수용하는 한편 선우추를 따르면서도 더욱 거침없는 필획을 구사하여 두 서가와와는 차별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렇듯 그의 글씨는 조맹부와 선우추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고 개성화하여 원대 서풍을

넘어선 특유의 독특하고 독창적인 풍격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할 때, 성수침의 행초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세련된 필치와 규칙적인 흐름 속에서도 변화를 주어 원과 방의 필세를 적절히 구사하는 조맹부 서풍이다. 둘째, 글자의 대소 또는 필획의 태세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전체적인 장법에서 표정의 변화가 두드러지는 선우추의 서풍이다. 셋째, 대담한 운필로 변화를 꾀한 자가풍이다. 안평대군 이용이 원대 서풍의 수용 단계에서 그치고 있는 반면, 성수침은 조맹부·선우추의 답습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만의 개성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그의 글씨는 당시 유행 서풍과는 차별되는 독창적인 개성풍을 창조함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 Ⅲ. 聽松 書風의 계승과 평가



도 15 成文濬, 〈行草 書簡〉, 紙本, 33.9×19.3cm, 《諸賢簡牘帖》, 죽산안씨는봉종가.

성수침의 서풍은 昌寧成氏 자손들과 坡平 尹氏 외손으로 이어져 그의 가문에서 다수의 명서가들이 배출되었다. 가계 외에도 몇몇 문인이 성수침의 서풍을 따르거나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 본장에서는 성수침의 서풍이 이들의 글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그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當代 및 後代인들의 평가를 통해서 성수침 글씨가 어떻게 인식되었으며, 그의 서풍이 한국서예사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 1. 청송 서풍의 繼承

창녕성씨 가문에서 성수침의 서풍은 아들 成渾(1535~1598)과 성혼의 아들인 成文濬(1559~1626)으로 이어진다.<sup>15</sup> 성혼은 부친의 蒼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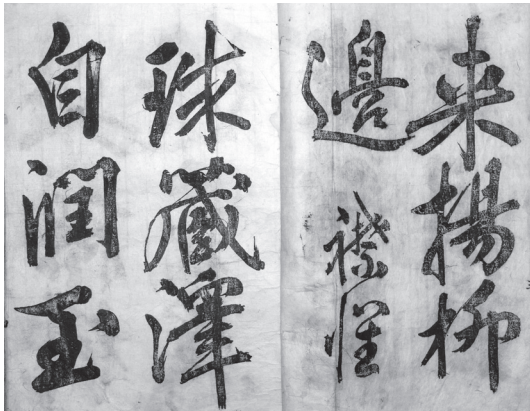
<sup>15</sup> 秦弘燮 編, 『韓國美術史資料集成(5)』, 『靑丘書畫譜』, “...筆法氣骨雄健, 書碑四.”; 『근역서화징』 권3, 성수침 조. 『東國文獻筆苑編』 인용문, “書有家學.”

한 서풍을 이어받아 雅趣 있는 글씨를 구사하였다. 그의 <행초 칠언절구>에는 웅건한 기골의 서풍이 잘 드러나 있다.<sup>16</sup> 이를 성수침의 글씨와 비교해 보면, 분방하고 활달한 필치와 변화로운 짜임에서 부자간에 서풍이 전승된 양상을 뚜렷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성문준의 <행초 서간>과 성수침의 서간을 비교하면 방필 위주의 운필로 상호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도 15).

한편 성수침의 서풍은 성흔의 사위였던 尹煌(1571~1639)에게로 전승되면서 파평윤씨 집안에까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율황의 아들 중 尹舜舉(1596~1668)·尹文學(1606~1672)·尹宣舉(1610~1669) 삼형제는 모두 글씨로 이름이 났으며, 서예에 정진하여 필법이 출중하여 예술적으로 높이 평가받은 17세기의 대표적 서예가이다.

윤순거는 특히 초서를 잘 썼다고 하는데 다음 윤증의 말을 통해 그가 성수침의 필법을 배웠음을 알 수 있다.

필법은 처음 청송 성수침을 배웠고, 다시 鍾繇와 王羲之를 배워 한 점 한 획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古法으로 하였다. 일찍이 말하길 “이것이 王道이다. 吳興(조맹부) 이하의 경우는 편법으로 잔재주를 부린 부류일 뿐이다” 하였다. 초서는 懷素를 취했는데 귀신도 따라 쓸 수 없을 정도의 조화로운 運筆은 선생이 자득한 것이다. 滄江 趙涑이 매양 이르기를 “선생의 글씨는 鍾鼎에 새길 만하고 글은 黼黻(黼와 黻, 고대 제왕의 大禮服에 놓은 수)을 빛낼 만하며 道는 세상의 모범이 될 만하다” 하였다.<sup>1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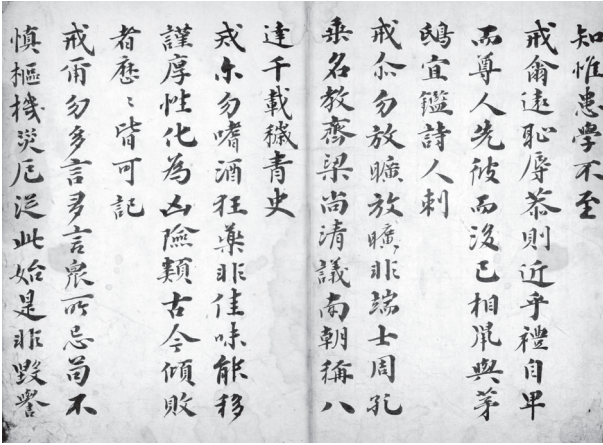


도 16 尹宣舉, <行書 宋詩 七言律詩>, 1668년, 목판, 50.1×30cm, <魯西諸先生筆蹟帖>, 장서각.

윤증은 윤순거의 글씨가 초기에 성수침의 글씨를 배워서 예스럽고 강건한 기운을 얻었고 후에 중요와 왕희지의 필법으로 전환하여 한 점 한 획을 진지하게 운용했다고 언급하였다. 윤순거의 <行書 宋詩 七言律詩>는 비록 목판에 새긴 글씨이지만 성수침의 대자 행초에서처럼 특유의 활달한 필치가 잘 나

16 성흔의 도판은 국립중앙박물관, 『國立中央博物館韓國書畫遺物圖錄』 8권(1998), p. 18 圖版 참조.

17 尹拯, 『明齋遺稿』 권40, 『仲父童土府君神道碑銘』, “筆法始學聽松, 變而爲鍾·王, 一點畫不放過, 必以古法. 嘗曰: ‘此王道也. 如吳興以下, 詭遇之流耳. 草聖則取懷素, 而至其運筆如造化, 鬼神之不可捉摸者, 則蓋其自得也. 滄江趙公涑, 每謂先生筆可銘鍾鼎, 文可煥黼黻, 道可範世俗.’”



도 17 尹拯, 〈行草 七言絕句〉, 紙本, 44×29cm, 《西峯筆帖帖》, 수원 한국서예박물관.

타나 있다(도 16).<sup>18</sup> 이 필적은 성수침의 글씨처럼 웅건한 기세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이 윤순거와 성수침의 목판 글씨는 양자간의 유사한 경향이 있다

윤선거는 『燃藜室記述』別集의 내용에 따르면 글씨를 잘 썼다고 하는데 특히 그의 필법의 연원이 성수침이라는 기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19</sup> 한편 윤선거의 아들인 윤증(1629~1714) 역시 성수침의 글씨를 따랐다는

문헌 기록도 전해진다.<sup>20</sup> 실제로 윤증의 필적을 보면 그의 서풍이 성수침에서 연원한 것임을 알 수 있다(도 17). 이 필적에서는 성수침의 소자 해서의 자형이나 획의 처리, 운필 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창녕성씨와 파평윤씨 집안의 글씨에는 성수침으로부터 전해진 가전 서풍의 특징이 그대로 녹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성수침 서풍의 영향을 받은 인물로 趙昱(1498~1557), 金行(1532~1588), 金玄成(1542~1621) 등 몇몇 문인을 들 수 있다. 조옥은 성수침과 함께 조광조의 문하 동료로, 그의 〈초서 五言詩〉는 점획이나 운필이 성수침 소자 행초에 가깝다.<sup>21</sup> 성수침과 가장 가까웠던 문인으로 김행이 있는데, 빼어난 문장과 글씨로 유명하다. 그는 성수침을 섬기면서 글씨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받아 스승 성수침의 글씨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한다.<sup>22</sup> 김행의 〈행초 七言律詩〉와 성수침 글씨를 비교하면 필법이 호방하고 장엄한 점에서 그 유사성을 살펴볼 수 있다.<sup>23</sup> 이외에도 김현성의 행서 필적은 송설체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지만, 계산된 듯한 짜임이나 연미한 필획의 송설체와는 달리, 짜임이 좀더 풀어지고 활달한 필획으로 변모되었다. 그의 필적은 성수침의 청경한 서풍을 이어받아 경쾌한 분위기를 뱃다(도 18). 이를 성수침의 글씨와 비교하면, 획의 시

18 여기서 성수침의 도판은 수원역사박물관 편, 『상설전시도록』(2008), p. 142 圖版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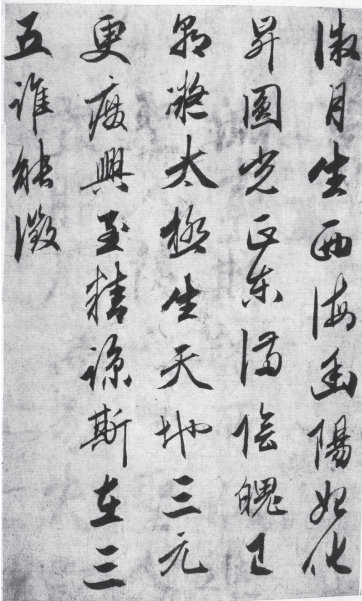
19 『근역서화징』 권4, 尹宜學 著, 『燃藜室別集』 인용문, “善書.”; 秦弘燮 編, 앞의 책, “...聽松筆法, 書金集碑.”

20 진홍섭 편, 앞의 책, “...聽松體, 晩年避筆名, 斷毫書字, 書朴東善碑.”

21 조옥의 도판은 국립중앙박물관, 『國立中央博物館韓國書畫遺物圖錄』 권13(2005), p. 59 圖版 참조.

22 진홍섭 편, 앞의 책, “...筆法豪健, 倣聽松體莫辨真偽, 一時名筆, 皆莫及.”

23 김행의 도판은 예술의전당, 『통문관: 한중일 서예 고문헌자료』 도록(2002), p. 120 圖版 참조.



도 18 金玄成, 《行草杜甫詩》, 絹本, 30×18cm, 《名家筆蹟帖》, 개인.

작과 끝에서 붓끝의 움직임이 미묘하게 처리된 송설체와 달리 둥글게 돌아가는 필세를 위주로 신속한 필치를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필치는 송설체를 근간으로 활달한 운필을 보인 성수침의 서풍에 훨씬 근접한다. 김현성은 당시 조맹부 서풍의 영향을 받은 성수침의 서풍을 수용하여 이를 유려한 필치로 변모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도 圓嶠 李匡師(1705~1777)의 《摸聽松手蹟》이 있는데, 이 필적은 1752년 이광사가 48세 때 성수침의 필적을 모서한 것이다(도 19). 《모청송수적》을 성수침의 《행초 李商隱詩》와 비교해 보면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도 20). 이렇듯 18세기를 대표하는 서예가 이광사에 의해 그의 필적이 모서되고 있는 데서 성수침의 서예사적 위상과 영향력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수침 서풍은 창녕성씨 자손과 파평윤씨 외손을 중심으로 家學으로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글씨에서는 성수침 서풍의 바탕이 된 원대 서풍의 영향이 보이며 성수침 특유의 개성적 필치까지 두루 확인할 수 있다.



도 19 李匡師, 《摸聽松手蹟》, 絹本, 15.3×25.4cm, 간송미술관.



도 20 성수침, 《行草 李商隱詩》, 絹本, 29.5×16.5cm, 《翰墨清玩帖》, 국립중앙박물관.

## 2. 청송 서풍의 評價

성수침의 서풍을 논평한 기록은 매우 소략하다. 게다가 성수침 본인이 필법에 관해 논한 문헌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여기에서는 당대 및 후대인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의 글씨가 어떻게 인식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평가는 크게 2가지 관점으로 집약된다.

첫째는 성수침 글씨에 대한 評語로, ‘雄健 蒼古’, ‘奇古 老蒼’ 등의 비유적 단어를 통해 그의 글씨를 평가한 것이다. 먼저 退溪 李滉(1501~1570)은 성수침의 묘갈명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sup>24</sup>

“(성수침이) 행서와 초서를 잘 썼고, 필법이 웅건하고 창고하여 스스로 一家를 이루었다. 그 득의 처는 運筆이 風雨와 같은 점이다. 그 작품을 얻는 자들이 拱璧보다도 더 보배로이 여겼다.”<sup>25</sup>

필법에 대해 ‘웅건’과 ‘창고’라는 평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이황의 주관을 드러내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웅대하고 건장하여 기세가 있는 운필과 古色을 띠고 있어 예스러운 필치로써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다음으로 이이가 성수침의 行狀에서 언급한 내용이다.<sup>26</sup>

“성수침의 필법은 妍媚함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고하고 노창함을 위주로 하니, 먹 기운이 높고 밝아서 스스로 일가를 이루었다. 그가 得意했을 때에는 운필을 神速하게 하여 조화의 공처럼 묘했으니, 글씨를 평하는 자들이 그 글씨를 당대의 제일이라고 추대하였다.”

이이는 성수침을 ‘기고·노창’한 서풍을 구축하여 일가를 이룬 서가로 높게 평가했다. ‘웅건·창고’, ‘기고·노창’ 등의 평어는 그의 대자 행초에서 보이는 거칠면서도 활달한 운필을 형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글씨는 당대인들이 평한 것처럼 유려한 운필을 추구하지 않았고 운필이 풍우처럼 매우 날쌔고 빨랐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성수침의 서예에 나타나는 면모들은 그가 청절과 은일을 몸소 실천한 도학자로서 후학들에 의해서 淸節의 표상으로 현창되고, 자연

<sup>24</sup> 이황이 1564년에 쓴 성수침묘갈명이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향양리에 남아 있다.

<sup>25</sup> 李滉, 『退溪集』 권46, 『聽松成先生墓碣銘(并序)』, “善行草書, 筆法雄健蒼古, 自成一派。其得意處, 運筆如風雨, 得之者不啻如拱璧。”

<sup>26</sup> 李珣, 『栗谷全書』 권18, 『聽松成先生行狀』, “其筆法, 不求妍媚, 惟以奇古老蒼爲主, 而墨氣高明, 自成一派。其得意時, 運筆神速, 妙若化工, 評書者, 推爲當代第一。”

을 벗 삼은 처사로서의 삶이 끊임없이 존송되었던 점과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된다.

둘째는 성수침 글씨의 연원에 대한 언급이다. 그의 글씨가 송설체에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은 익히 알려진 것으로, 朴世堂(1629~1703)이 聽松書帖을 보고 남긴 題跋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sup>27</sup> 朴世采(1631~1695)는 성수침이 직접 쓴 두보 시에 차운하기를 성수침의 글씨에는 伯機[선우추의 字]의 풍모가 있다고 하였다.<sup>28</sup> 柳夢寅(1559~1623)은 “청송의 글씨는 대개 선우추의 글씨를 근본으로 하면서 조맹부의 송설체를 섞은 것이다.”라고 하였다.<sup>29</sup> 申命圭(1618~1688)는 선우추의 초서가 성수침에게 영향을 주었다고 언급했다.<sup>30</sup> 이렇듯 유몽인과 신명규는 성수침의 글씨가 선우추를 바탕으로 조맹부를 가미했다거나, 조맹부를 바탕으로 선우추로 넓혀나갔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수침의 글씨가 조맹부·선우추의 서풍의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들은 앞서 그의 서풍을 살펴보면 고증하였다. 이밖에 黃胤錫(1729~1791)은 성수침이 당시 유행하던 명나라 張弼(1425~1487)의 서풍을 수용했다고 언급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성수침의 필적 중에 장필을 수용한 사례는 확인할 수 없다.<sup>31</sup>

이렇듯 성수침 글씨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이 주를 이루는 반면, 몇몇 부정적 견해도 있다. 鄭士龍(1494~1573)은 정형화되어 연미하다는 지적을 받던 송설체의 기풍을 견지한 성수침의 글씨를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다.<sup>32</sup> 하지만 정사룡의 글씨를 보면 성수침의 서풍과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보아, 그가 성수침의 서풍과 유사하게 구사하면서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치 이황이 장필의 글씨를 좇는 세태를 비난하면서도, 그의 일부 초서 필적에서 장필의 서풍을 수용한 흔적을 남긴 것과 같은 예로 볼 수 있다. 한편 이황은 성수침의 글씨는 짜임이 성글다고 하여 후배 서예가 송인에 비해 저평가하기도 하였다.<sup>33</sup> 이황은 글씨에서 ‘健’ 즉, 勁健한 획법과 긴밀한 짜임을 중시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健하기는 하지만 짜임이 성근 성수침의 글씨를 저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27 朴世堂, 『西溪集』 권8, 「書聽松書帖後」, “其法本自吳興出, 姿媚故當不如, 至其奇逸不俗, 又非趙所能及也.”

28 朴世采, 『南溪集』 外集 권1, 「新昌客館, 次聽松先生手書杜律韻」, “詩堪少陵色, 筆有伯機風.”

29 柳夢寅, 『於于野談』, “聽松之書, 蓋取鮮于樞, 雜以趙松雪.”

30 申命圭, 『點齋記聞錄』 권3, “聽松先生書法蓋學松雪, 而旁通鮮于樞之法, 蒼古奇邁, 自成一家, 而凡蜀體波法甚長, 而先生則作波甚短, 此其不能發達之驗也耶.”

31 黃胤錫, 『頤齋遺藁』 권12, 「題跋—書張東海千文法帖後」, “右皇明張東海汝弼千字草書. 本國驪興李震休伯起所識而傳者. 蓋嘉靖間人, 而書亦及其時東來, 一國書家靡狀宗之. 如河西·聽松諸賢 猶駸駸游戲於斯, 而孤山蓬萊 尤其酷好而與化者也.”

32 權應仁, 『松溪漫錄』 下(『大東野乘』 권56); 『松溪漫錄』 下(국역『대동야승』 14, 민족문화추진회, 1971, p. 268 참조), “成聽松筆法最有古氣, 安平以後罕有其侶, 而唯湖陰不愛曰, 欲訪友某, 其家蓄成某所書屏風, 故不敢也.”

33 李滉, 앞의 책, 「書—答李公幹」, “礪城與聽松之筆, 時人無出其右, 但聽松, 筆健而稍疎於締字, 不若礪城之尤好故云云.”

평가는 이황이 단정한 짜임과 깨끗한 획법을 중시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가는 평자의 개인적 취향과 예술적 지향점에 따라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지, 성수침의 글씨에 대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평가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이상의 논평을 종합하면 성수침은 조맹부·선우추 등의 원대 명적을 두루 취합하여 독보적인 경지를 이룬 서예가이며, ‘웅건 창고’하면서 ‘기고 노창’한 글씨로 당시의 서예에 새로운 기풍을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성수침 글씨에 보이는 연미한 필치나 긴밀하지 않은 성근 짜임에 대해서 저평가되고 있었던 점도 알 수 있다.

####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16세기의 학자이자 개성적인 명필가로 주목받았던 청송 성수침 글씨의 특징과 서예사적인 의의를 밝혀 보았다.

성수침의 글씨에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각각의 특징적 요소가 공통적으로 가미된 필적이 많다. 첫째, 소자 해서와 중자인 비갈문 모두 왕법을 근간으로 하여 송설체를 충실히 수용하였다. 둘째, 소자 행초는 송설체에 근간을 두면서 둥글둥글한 원필세 위주의 독특한 필치가 나타나는데 이는 문징명의 글씨와 유사한 면모가 있다. 성수침의 글씨가 분명하게 문징명의 서풍을 수용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원대 서풍을 충실히 수용하여 그 안에서 변모시킨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자 행초는 소자나 중자에서 보이는 특징이 확대되어 나타나거나 선우추의 서풍을 수용한 예가 많은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 특유의 개성적이고 자유분방한 필치를 강하게 구사하였다. 이렇게 독자적으로 자기화한 글씨는 성수침 당대의 명서가들과 차별화되었던 활달하면서 힘 있는 필치이다. 그가 글씨를 쓰기 시작한 초기에는 유행을 따라 송설체를 받아들였으나, 이후 선우추 서풍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경지를 구축해 간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보아 성수침은 晉代古法을 이상으로 하면서 자기화의 길을 꾸준히 걸어갔던 서예가로 평할 수 있다.

몇몇 필적의 간기와 찍혀 있는 印影을 통해 성수침의 노년기 글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해서는 성글은 짜임을 탈피하여 짜임새 있게 변모하였고, 행서는 정갈하고 단정한 필치에서 태세나 자간의 변화를 다소 가미하여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행초에서는 더욱 굳세고 강한 필치가 보이며 특히 특경 자의 대소 변화가 강조된 운필이 나타나고 있는데, 노년으로 갈수록 더욱 자유분방한 필치를 구사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성수침 노년기의 필적은 글씨의 원숙

함과 독창성을 겸비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서예사적 의의를 지닌다.

성수침의 서풍은 창녕성씨 자손과 파평윤씨 외손에게 가진 서풍으로 계승되었다. 이들의 필적에서도 성수침의 활달하고 밝은 글씨의 특징이 그대로 드러난다. 또한 친우와 후배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지속적으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력은 청송 서풍에 대한 당·후대인들의 다수의 평가에서 확인된다. 당대인들은 대체로 성수침의 글씨가 연미한 자태를 지닌 송설체의 외형미를 추구하지 않고 이것을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굳세고 예스러운 풍격을 지녔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기고·노창’, ‘웅건·창고’ 등의 평어는 대자 행초에서 보이는 자유자재의 거침없는 필획을 개성적이며 창고한 운치로 해석해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대인들은 성수침 글씨의 연원에 대해 집중적으로 언급했는데, 조맹부와 선우추 등의 원대 서풍이 그것이다. 그의 글씨에서는 대체적으로 원대 서풍의 수용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성수침은 처사로서의 뚜렷한 위상과 함께 조선 전기 서단을 대표하는 명서가이다. 그의 서풍은 송설체가 대세를 이루었던 이전 시기와, 명대 서풍이 물 밑 듯이 밀려와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16세기 당대 및 이후 시기의 글씨와도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원대 서풍의 답습에 그치지 않고 생기 있는 운필의 자가풍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성수침의 글씨가 가진 서예사적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Key Words)**\_ 聽松 成守琛(Cheongsong Seong Su-chim), 趙孟頫(Zhao Mengfu), 鮮于樞(Xianyu Shu), 조선 중기 서풍(mid-Choson period calligraphy style), 16세기 서예(16 century Calligraphy)

■ 투고일 2014년 2월 28일 | 심사개시일 2014년 4월 11일 | 심사완료일 2014년 5월 7일 ■

## 참고문헌

### 1. 사료·집성류

- 『연산군일기』, 『중종실록』, 『명종실록』.  
오세창 편저·홍찬유 감수, 『국역 槿域書畫徵』, 시공사, 1998.  
秦弘燮 編, 『韓國美術史資料集成(5)』, 一志社, 1996.  
成山柱 等編, 『昌寧成氏桑谷派族譜』, 1845년, 한국학중앙연구원 藏書閣.  
坡平尹氏魯宗派譜刊行委員會, 『坡平尹氏 魯宗派譜』, 1983.

### 2. 문집류

- 權應仁(生沒年 未詳), 『松溪漫錄』下(『大東野乘』56, 朝鮮古書刊行會, 1968).  
奇大升(1527-1572), 『高峯集』(韓國文集叢刊 40).  
金正喜(1786-1856), 『阮堂全集』(韓國文集叢刊 301).  
朴世堂(1629-1703), 『西溪集』(韓國文集叢刊 134).  
朴世采(1631-1695), 『南溪集』(韓國文集叢刊 138·139·140·141·142).  
成 渾(1535-1598), 『牛溪集』(韓國文集叢刊 43).  
成守琛(1493-1564), 『聽松集』(韓國文集叢刊 26).  
申命圭(1618-1688), 『默齋記聞錄』.  
柳夢寅(1559-1623), 『於集』(韓國文集叢刊 63).  
尹 拯(1629-1714), 『明齋遺稿』(韓國文集叢刊 135·136).  
李 珥(1536-1584), 『栗谷全書』(韓國文集叢刊 44·45).  
李 滉(1501-1570), 『退溪集』(韓國文集叢刊 29-31).  
黃胤錫(1729-1791), 『頤齋遺藁』(韓國文集叢刊 246).

### 3. 도록

-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刻石』, 2011.  
禹燦奎 編, 『朝鮮中期的 書藝』, 學古齋, 1990.  
『高麗末 朝鮮初の 書藝』, 예술의전당, 1996.  
『國立中央博物館韓國書畫遺物圖錄』8·9·10·11·13권, 국립중앙박물관.  
『槿墨』仁·義·禮. 성균관대학교박물관, 2009.  
『근역서휘·근역화휘 명품선』, 서울대학교박물관, 2002.

- 『朝鮮王朝御筆』, 예술의전당, 2002.
- 『(韓中日 書藝·古文獻 資料) 通文館』, 우일출판사, 2002.
- 『筆神聞道: 金生 1300』, 예술의전당, 2012.
- 『韓國書藝二千年』, 예술의전당, 2000.
- 『한국의 옛글씨: 조선전기 명필』, 문화재청, 2010.
- 劉正成 主編; 楚默 本卷主編, 『中國書法全集 45, 元代編. 鮮于樞 張雨卷』, 北京: 榮寶齋, 2000.
- 蕭燕翼 主編, 『明代書法』, 香港: 商務印書館, 2001.
- 吳哲夫 編, 『中華五千年文物集刊』, 臺北: 同編輯委員會, 1984.
- 『故宮博物院藏文物珍品大系 元代書法』,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2001.
- 『書道全集』中國 12: 元·明 I』, 東京: 平凡社, 1980.
- 『中國美術全集 5: 明代書法』, 上海: 上海人民美術出版社, 1993.
- 『中國法書選 49 趙孟頫集』, 東京: 二玄社, 2000.
- 『晉唐法書名蹟』, 國立故宮博物院, 2008.
- 『翰墨風神—故宮名篇名家書法典藏楷書卷』, 香港商務出版, 2009.

#### 4. 논문

- 권혁명, 「聽松 成守琛 詩世界의 一考察—'淸隱'의 詩世界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1집, 2008.
- 김홍남, 「安平大君 소장 中國 書藝: 宋 徽宗, 蘇軾, 趙孟頫, 鮮于樞」, 『미술사논단』 8, 한국미술연구소, 1999.
- 成校珍, 「聽松의 遺逸思想」, 『研究論文集』 34호,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1987.
- 李完雨, 「조선시대 松雪體의 토착화」, 『書藝學』 제2호, 韓國書藝學會, 2001.
- \_\_\_\_\_, 「聽松 成守琛 I·II」, 『월간까마』 36, 韓國의 名書家 ㉗·㉘, 石曲室, 2002.
- \_\_\_\_\_, 「安平大君 李瑬의 文藝活動과 書藝」, 『美術史學研究』 246·257, 韓國美術史學會, 2005.
- 池承鍾, 「『聽松集』 解題」, 『南冥學研究』 제9집, 慶尙大學校 南冥學研究所, 2000.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6세기를 대표하는 학자이자 명필인 聽松 成守琛(1493-1564) 글씨의 연원과 특징 등 서예 세계를 고찰한 것이다. 그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隱逸之士이자, 개성적이고 활달한 書風으로 書壇의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이는 성수침에 대한 당대 문사들의 평가나 그가 교유한 문인들이 서단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간 성수침에 대한 연구는 생애와 詩文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반면 서예사 방면에서는 본격적으로 조명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여 보고는 성수침 글씨의 특징과 전후 영향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성수침의 생애는 세 시절로 나눌 수 있는데, ‘初年 시절(1493~1525)’은 서울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靜菴 趙光祖의 문인으로 활동하던 시기이다. 중년 ‘聽松堂 시절(1526~1543)’은 그가 己卯土禍를 겪으면서 經世의 뜻을 버리고, 청송당을 세워 은거 생활을 했던 시기이다. 노년 ‘竹雨堂 시절(1544~1564)’은 경기도 파평산 아래 죽우당에서 살기 시작한 때부터 일생을 마칠 때까지이다. 이같은 청송당·죽우당 堂號는 생애를 나누는 기준이면서, 동시에 글씨에서 시기를 짐작할 수 있게 해 주는 주요한 기준점이다.

현전하는 성수침의 글씨는 眞蹟과 摹刻 필적으로 전하는데, 서체는 크게 楷書와 行草로 구분된다. 그의 서풍을 정리하면, 먼저 해서는 王羲之 등의 전대의 영향을 받아 기본적으로 松雪體를 크게 수용하였다. 다음으로 소자 행초 역시 송설체에 근간을 두면서 원필세의 특유의 필치를 보였다. 이는 文徵明의 글씨에서 보이는 요소와 유사하기는 하지만 수용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끝으로 대자 행초는 소자나 중자 행초에서 보이는 특징이 확대되어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수의 필적에서 특유의 자유분방한 필치가 강하게 드러난다. 이는 鮮于樞의 서풍을 수용하여 자기화 한 것으로, 특히 선우추 서풍의 수용은 성수침 특유의 개성적 서풍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이상으로 그의 글씨는 16세기 전반에서 볼 수 없었던 활달하고 밝은 서풍으로 당시 다른 서가들과 차별화되었다. 또한 元代의 서풍에 영향을 받아 자기만의 양식으로 변화·발전시켜 독자적인 서풍을 구사하였다. 또한 성수침은 15세기 유행되었던 송설체의 연미함을 탈피하려는 노력으로 이전의 어느 서예가의 글씨에서도 볼 수 없는 독특한 풍격을 구사하였다. 이러한 그의 글씨는 원대 서풍에 답습에 그치지 않고 자유자재로 거침없는 필획으로 여러 가지 서풍을 구사하여 미묘한 정취를 보인다. 이에 성수침 서풍을 따르거나 비슷하게 구사한 명필이 다수 나오게 되었고, 서예가로서 당대와 후대 사람들에 의해 높이 평가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그의 글씨는 생기 있는 운필로 창고한 기상을 보이는 개성풍이라는 측면에서 서예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 The Calligraphy Style of Seong Su-chim

Chung Jin-Kyu \*

This paper discusses the life of Cheongsong (聽松) Seong Su-chim (成守琛, 1493~1564), a famous calligrapher of 16th century, and his distinctive calligraphy style. Considering the acclamation by the contemporary painters and writers and the reputation of his acquaintances, Seong Su-chim was a noted calligrapher of early Joseon Dynasty.

This study argues that the previous studies on Seong Su-chim have only focused on his life and literary works, and aims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his calligraphy by examining his works and exploring related historical records. To do this, it examines his family, life, and friends and reveals how those influences affected the development of his style.

Seong Su-chim moved his place of residence three times and these periods became important turning points in his life. The first period(1493~1525) was from his birth to when he studied with Jo Gwang-jo, a famous scholar and high official. The Cheongsong-dang (聽松堂) period(1526-1543) was the time when he started being anchoritic in earnest. When he was 27, he devoted himself to study in the small house which he built at the foot of Beakak Mountain (白岳山). The Jugu-dang (竹雨堂) period(1544~1564) was from when he moved to Jugu-dang at Gyeonggi province (京畿道).

There are his extant calligraphic works still remaining including writing albums and several wood-block prints. The works can be categorized by the regular script, running script, and running-cursive script. The majority of his works are of the running-cursive style. Since none of his early work remains, it is hard to deeply grasp development or change of his style. Based on a few remaining works which contain his signature, most of his works were produced in Cheongsong-dang and Jugu-dang periods. His detailed calligraphy styles are following.

---

\* Curator, Calligraphy Museum in Seoul Arts Center

First of all, regular script was influenced by Zhao Mengfu (趙孟頫, 1254~1322)'s style, and partially took the style of Wen Zhengming (文徵明, 1470-1559). However, it is hard to see the changes of his style since the works with signatures are only limited to his later works. The small-size running-cursive script is also based on Zhao Mengfu's brushwork with influences from Wen Zhengming and Xian-yu Shu (鮮于樞, 1257~1302)'s. Especially the fact that he accepted Xian-yu Shu's style was noticeable because it helped Seong Su-chim to build his own style after adapting his style. The large-size running-cursive script escalated its features from his earlier works shown in the small-size running-cursive scripts, and this seems to be related to his relocation to a new place in later years due to bankruptcy. His characteristic style of calligraphy strongly emerged in this time.

Sung's dynamic style was distinguishable from works of other calligraphers and outstanding among them with his unique style. By inference, his style was developed by accepting popular styles of those times and adding his own style to them, which makes his works special among other works. Thus, there is no doubt that he was one of representative calligraphers in early Joseon Dynasty.

According to the following reasons, his works are highly acclaimed. First, he has a very unique style which hasn't been found in any other's work before. Second, the delicate taste of his works was completed by adapting various styles unrestrictedly. Third, there were followers who imitated or copied his style after him. Therefore, his lively calligraphy style can be considered as Joseon version of Zhao Mengfu's brushwork.